# 낯설지만 신선한 체험, 여름농활 일상을 탈피한 값진 성찰의 시간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을에 꼭 와야해요. 그때까지 보고 싶어서 어쩌나…"

마을을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밤에 얼핏잔 마을 잔치때, 어면 할머니께서 나의 손을 꼭 잡으시며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나의 귀를 떠나지 않고 있다.

농촌 활동!

이것 또한, 고등 학교 때 '내 일은 사랑'이나 '우리들의 천국' 같은 대학 생활을 다룬 TV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러워 했던, 오직 대학 입학을 위해 밤늦게까지 자율 학습을 하며 가끔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이라는 주제로 연습장에 썼던 낙서 내용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농활은 내가 꼭 가서 경험해 보고 싶은 일이었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3일 오후에 후발대로 출발했다. (물론 어렵수 없는 사정이었고 비록 지금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번 농활에서 가장 후회되었던 점이 선발대가 아니라 후발대였다는 것이다.)

전북 고창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의 잠은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높이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비치는 호린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는데, 잠을 깨어 보니 높은 건물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하늘까지 맑게 개여 넓게 펼쳐진 호남 평야의 푸르름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문리대 지리학과는 전북 고창에서도 아산면 구암리라는 고추와 담배 농사가 주작물인 마을에서 활동을 하였다.

밤 늦게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별들과 검게 탄 선발대의 모습, 그리고 면 체육 대회 후 마을의 작은 뒷풀이를 하느라 분선대의 흥불이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후발대인 만큼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나 자신의 의무감에 사로잡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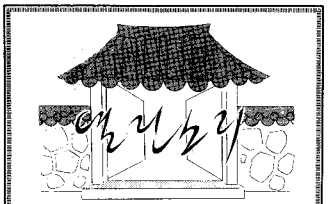
비록 담배순을 따고, 담배잎을 따서 엮는 단순 노동에 나 자신을 잃고, 강렬한 햇볕아래 많은 비 오듯 흘러 내렸지만, 모든 일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일이구나 생각하니 작은 것, 힘든 것 하나 하나 소중한 의미로 다가 오는 것이었다. 새침이라는 것도 먹어보고, 경운기도 타 보고 낮에 일을 하고 밤을 흘리면서 인위적으로 밤을 흘리려고 사우나에다 에어로빅을 하는 도시 사람들을 생각했고, 분반 활동으로 아동반을 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과 과자 몇 봉지로 스무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만족하는 모습 뒤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도 투정하는 도시 아이들을 생각했고, 경운기, 담배밭, 전문대에 간 아들을 자랑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들 뒤로 지가용, 보석, 일류대에 입학한 아들을 자랑하는 도시의 복부인을 생각했다. 너무도 씁쓸한 미소와 함께 등을 벽에 대지 말라는 규칙과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며 했던 평가시간에는 선배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내 인생의 자극제가 되었고, 손이 너무 곱다며 말씀해 주시는 거친 손의 아주머니 앞에서는 왜 그리 나 자신이 부끄러웠던지…. 우리들은 며칠 만하면 되지만, 계속 해야 하는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의 잠은 또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주었다. 불편하고 힘들어서 빨리 서울로 올라갔으면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담배밭이 그립고, 오가며 인사 나누던 분들과 아동반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되돌아 가고 싶다. 그리고 교정에 도착해서는 멋을 내고 하얀 피부에 히히덕 거리는 학우들의 모습이 왜 그리 밉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내 의식도 많이 변화한 너무도 좋은 이번 농활의 마무리를 이런 글을 씀으로 해서 더욱 더 알차게 끝 맺어 본다.

농활을 함께 한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전 지 영**
〈지리·1〉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내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 한진파업근로자에 비인간적 탄압 산업평화 미명아래 노동자만 희생

지난 2일 부산에 사는 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일이다.

밤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한 나는 택시를 타고 선배집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보니 전경들이 길 양옆에 빽빽히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고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분께 물어보니 한진중공업 파업 때문이라고 했다. 차가 너무 밀려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조금 가다보니 아주머니 백명 정도와 전경들이 회사 정문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머릿째 배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도시락과 같아 입을 옷을 가져 온 모양이었다. 그러나 전경들은 아주머니들을 방패로 가로막은 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고함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고 세상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 나온 꼬맹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앞을 가득 메워 난리통이었지만 전경들은 꿈쩍도 않았다. '상부의 지시'라는 것이다. 한참 뒤 아주머니들은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분노를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인 시행수도 음식을 차입받고 가족 면회가 허용되는데 자신들이 땀흘려 일한 댓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나 신한국 건설이니 떠들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화해를 주장해 왔다. 산업평화라는 미명 아래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단결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한 결코 신한국은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진중공업 파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파업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투쟁과 그동안 있었던 전기림, 전지협 그리고 한진중공업에 대한 뒷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이 강 현**
〈정외·4〉

◇…계절학기 졸속개편을 보며

# 이름뿐인 3학기제—수강료만 대폭인상

유난히 후덥지근한 올 여름의 계절학기는 수강생에게 또 하나의 답답함을 안겨 주었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급작스런 수강료의 인상 때문이다. 작년까지의 수강료는 학점당 4만원으로 6학점을 들으면 24만원을 내면 되었다. 이것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 비싸다는 불평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곤 했다. 그런데 이번의 계절학기는 학점당 5만원에 파묵당 등록금까지 1만5천원씩 내게 되어 있어 학생들은 같은 학점을 듣는데도 33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그마치 40%나 인상된 것이다.

교무처는 계절학기 수강료의 책정방법은 등록금에 한 학기 평균 수강학점인 20을 나누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교당국은 이번 인상의 근거로 "3학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또한 타학교와의 수준을 맞추다 보니 등록비가 생겼다"고 말한다.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측은 계절학기제를 대폭 수정하면서 실질적인 3학기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3학기제를 정착시켜 조기졸업과 복수전공이 용이해지도록 한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을 둘러싸고 보았을 때 학교가 3학기제를 실시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학교 수익을 늘리려는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점을 돈으로 사게 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인상된 수강료와 과목수별로 차등적인 등록비를 확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다. 학우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킨 이번 조치는 사전에 학생회나 학우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다. 이러한 일방 행정을 학자추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들로부터 단돈 10원을 걷더라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물며 이처럼 엄청난 부담을 떠맡길 경우에야. 이번에 인상된 수강료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비싼 고려대와 같다. 무엇이든 다른 학교가 이러하니 우리도 이런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 같다. 등록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덜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등록금에 학점수를 나누어 한 학점당 수강료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학교에서의 생활—여기에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강의실, 학교의 여러 복지 시설 이용에 대한 댓가도 포함되는 것이다.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들에겐 교수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외에 다른 것을 더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학교측은 남는 금액을 누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복지에 쓰이니 오해는 말라고 얘기한다. 등록금에서 분명히 부담됐을 복지에 관한 비용을 일부 학생에게 다시금 부담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운 여름에 강의실을 지키는 학생들에게 그 불리한 점을 이용하여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인상된 수강료와, 또 다른 학기라는 이름에 비해서 강의 수준은 어떠한가. 별반 나아진게 없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수강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졸속 행정은 안된다.

대학평가인정제 발표이후 학교당국은 여러가지 발전계획을 꾸준히 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모양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 용 훈**
〈서울 교과과정심의위원장〉

## 교수동정

### 이성복교수 방일

【서울캠퍼스】▲김진수(체대·체육학)교수=7월4일부터 7월30일까지 친지방문차 미국방문 ▲이경희(사대·교직과)교수=7월12일부터 8월20일까지 L.A교포행사 참석 및 공북절 행사준비차 미국방문 ▲홍정표(치과대)교수=7월24일부터 8월2일까지 치대방문차 뉴질랜드 방문 ▲이성복(치과대)교수=7월11일부터 8월9일까지 치과임플란트공동연구 및 임상연학차 일본방문 ▲권순자(문리대·화학)교수=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제6차 APFC참석차 호주방문 ▲안상철(문리대·영문)교수=7월18일부터 8월12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차 영국 방문 ▲라종일(정경대·정외)교수=7월16일부터 7월25일까지 중국길림대학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중국방문 ▲이경자(정경대·신방)교수=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자료수집차 미국방문 ▲이경섭·배형섭·김영석(한의대)교수=7월31일부터 8월7일까지 제1차 한·중 중풍병연구회 참가차 중국방문 ▲이미원(문리대·국문)교수=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세계여성극학회 및 아주연극학회 참석차 호주방문 ▲최유진(치과대)교수=7월6일부터 7월30일까지 제네바의대 부설 형태연구소 방문차 스위스방문 ▲신진철(정경대·경영학)교수=샌프란시스코서개최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 발표차 7월2일부터 8월25일까지 미국 방문.

【수원캠퍼스】▲방곤(외대·불문)교수=6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자료준비차 북경·동경·홍콩방문 ▲성효숙(외대·불문)교수=7월4일부터 8월18일까지 해외학술활동 및 도서구입차 프랑스 방문 ▲전광진(외대·중문)=6월27일부터 7월25일까지 해외어학연수인솔 중국방문 ▲이덕형(외대·러시아어)교수=7월13일부터 8월4일까지 자료준비차 미국 방문 ▲황원국(공대·원자력)교수=8월15일부터 30일까지 세미나차 미국방문 ▲김상녕(공대·원자력)교수=7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석차 일본방문

## 등 기

###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이승우(국문·4) ▲송수연(수학·4) ▲안정수(영문·4) ▲문은선(법학·4) ▲김금하(신방·2) ▲김훈(무역·1) ▲변경아(무역·1) ▲이범균(무역·4) ▲정치홍(정외·2) ▲이병주(경제·3) ▲심일보(경영·4) ▲정상규(경영·4) ▲조성호(한문·2)

【수원캠퍼스】▲이동진(불문·3) ▲이성실(서반어) ▲이장원(국제관계·3) ▲김병희(수학·3) ▲장현섭(환경·2) ▲이정아(환경·2) ▲김경우(유전) ▲김은화(우주·2) ▲노일성(우주) ▲백병인(우주·3) ▲권은철(기계) ▲문희남(기계·2) ▲김학용(기계) ▲이태형(화공) ▲김태윤(건축·2) ▲박지영(건축·3) ▲김경표(토목·3) ▲이정환(산공·3) ▲김학성(원자·1)·▲홍상돈(전산·3) ▲박상식(농학·2) ▲안종훈(임학·4) ▲채민석(원예·3) ▲권운철(원예·1) ▲황윤정(원예·1) ▲장현수(식공) ▲장순희(식공·1) ▲손석훈(조경·2) ▲이용주(조경·4) ▲최희정(체육) ▲이희신(체육) ▲곽은창(체육) ▲김대중(체육) ▲이성민(태권도) ▲신용선(국선관·352)

## 습 득

###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김현미(무역·94) ▲윤진선(의상·91) ◇학생증=▲상석민(치의예·93) ▲김미라(식영·91) ▲이은영(간전·93) ◇도서대출증=▲최성룡(호전·조리·93) ▲박상덕(호전·호경·94)

【수원캠퍼스】◇지갑=▲조내경(중문·92) ◇도서대출·출입증=▲김상표(환경·90) ◇학생증=▲이상룡(경영·89)

## 朔風

# 굴절된 '짝짓기'의 비애

개혁은 피상적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개혁적인가. 그것이 피상적이라면 그 잘못은 지도층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행동양태가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소치인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칼로 베어 단층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는 그 단면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집합이라는 수학의 한 분야를 배우면서 우리는 '일 대 일' 대응이라는 말도 배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일 대 일'대응관계를 벗어나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합리는 주체와 객체를 다르게 짝짓기 해도 무방하게 만든다.

요즘 덤달이 시리즈가 유행이다. 덤달이 시리즈가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물론 여러사람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틀어 보기'의 한 전형일 수 있다. 말 그대로의 형식이 조금 변하면서 뜻이 완전히 바뀌는 덤달이의 글짓기는 그래서 이제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건 비틀어진 상식이다. 온전히 제 형체를 갖추지 못하는.

만약 덤달이의 상식이 사회에 통파의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래의 노래도 더 이상 절절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놓으셨나보다…"

이 노래에서 '고등어'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을 바꿔보자. '한순간' 정겨움으로 가득 찼던 노래는 공포영화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잔혹함으로 바뀐다. 이 사회는 바로 '한순간'의 찰나에 놓여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 없이 이 사회의 순환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지난 6월 21일 대학교재를 채택하면서 특정 출판사로부터 3년간 5백~3천만원의 채택료를 받은 혐의로 전국 54개 대학의 교수 92명이 검찰에 무려기 격발된 사실도 주목해보자. 따지고 보면 이들은 요즘 말로 '제수없게' 걸려든 축에 속한다. 출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채택료에 대한 시비가 끓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채택료를 근절하자는 출판인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보여주었다. '지고의 지성'은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지금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상식의 사회는 쉽게 식상할지 모르나 원칙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는,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다. 무원칙적으로 굴절된, 표면의 긴장에 흔들리고 있는 거울이다. 일그러져서 거울 바깥으로 튕겨 튀어나오는 사회만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사진식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모든 밑(뿌)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짝짓기가 아니다. 거울 속에서 반영되어 빛이 튕겨나오는 그 '한순간', 짝짓기는 오입질이 되고 만다.

〈시우〉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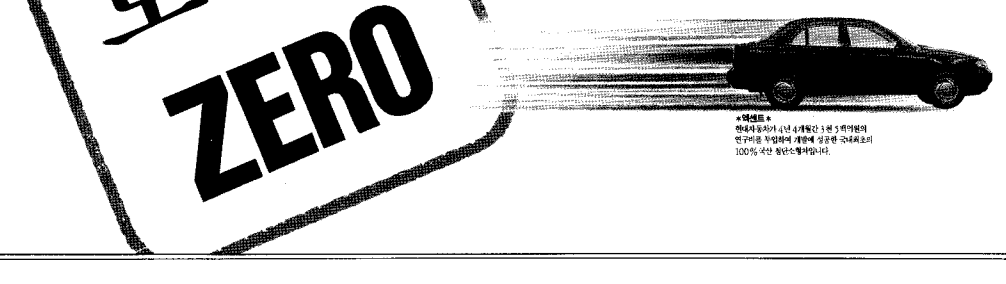
국산車는 참으로 많습니다
로열티 하나없는 100% 우리車는 現代 뿐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오직 "技術"에 달려있습니다.

256MD램, 자기부상열차, LNG선, 무공해 전기자동차 등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와 당당히 겨루며 성장해온 現代 —

1990년 국내 최초로 현대중공업이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고
전자·자동차·중전기 분야에서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現代는,
100% 순수 우리기술의 수출전략형 승용차 "엑센트"개발을
제기로 완전한 技術自立을 향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로열티 ZERO




●현대그룹 연구소 : 15개社 26개 연구소
(박사이상 순수연구인력 3,568명)
●ISO9000시리즈 획득 현황
현대건설 全 사업부문 ISO 9001, 현대중공 공작기계부문 ISO 9002
현대자동차 엔진트라 ISO 9002, 현대석유화학 全 생산제품 ISO 9002
현대강관 全 생산제품 ISO 9002, 현대중공업 수사업부문 ISO 9001, 9002 등
●장영실상 수상 현황
현대자동차 α엔진 및 트랜스미션, 현대전자 모니터 검사시스템,
현대중공업 초고속 수중익 쌍동여객선 등 11회 수상

現代